

✿ 더 깊은 묵상 ✿

노동과 믿음

젊은 수도사가 하루는 실바누스가 생활하는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여러 수도사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보고
소리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같이
여러분도 일하기보다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실바누스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일렸습니다.

"저 형제에게 성경을 주어 기도실에서 읽도록하게."

젊은 수도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배가 고파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누구 하나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실바누스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른 수도사들은 식사를 끝낸 뒤였습니다.
자신에게 식사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따지자,
실바누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영적인 사람인데 무슨 썩어질 양식이 필요한가?
우리는 육체의 노동을 하지만 자네는 더 좋은 일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았나. 자네는 온종일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어째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가?"
이 말에 깨우침을 받은 젊은 수도사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실바누스가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다네.
마르다의 땀 흘린 수고가 있었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것일세."

출처 -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131가지/유재덕